군민의 꿈과 행복을 열어가는 신뢰받는 의회

5분 자유발언

강신두 의원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박래 군수님과 박여종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가족행복도시 추진과 군청사 이전,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 추진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함께하고 있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등록경로당에 대하여 급식과 청소 등을 전담하는 가칭 “관리인(급식도우미)” 배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한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4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각 경로당별로 매월 운영비 10만 원과 7개월분에 대한 냉·난방비 그리고 8개월분의 정부양

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비 확대와 노인이용시설 지원비 신설을 골자로 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 내에서 인구수 대비 가장 높은 노령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상 노인복지 관련 지원책 강화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관내 여러 경로당을 방문하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공통적인 건의사항 중 하나가 경로당 내에 급식과 청소를 전담하는 인력배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별로 연간 8개월분의 정부양곡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급식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일부이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양곡소비가 되지 않아 남는 양곡으로 연말에 떡을 해 드시는 등 당초의 지원취지를 벗어나 소비가 이루어지는 측면입니다.

정부양곡 소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용객 노령화에 따른 청소 등 어려움을

해소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로당 이용 노인분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급식을 전담하는 어르신과의 갈등, 또는 경로당을 이용 하시는 분과 이용 안하시는 분과의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미리 예상하여 사업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경로당 “관리인” 배치사업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부양곡 소비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관리의 긍정적인 효과도 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충남도내에서는 당진시와 인근 보령시, 부여군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몇몇 경로당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본 의원은 향후 경로당 내 “관리인(급식도우미)” 배치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우리 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 내 “관리인(급식도우미)” 배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군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에는 다소 많은 예산이 부담되더라도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군수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경로당, 행복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